

베이비붐세대 67% “노후에 사회참여 활동 하겠다”

빛고을노인재단, 광주 48~56세 대상 설문
“70세 넘어야 ‘노인’...경제안정·건강 중요”

광주에 사는 베이비붐세대의 절반이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은 33.6%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또 이들의 55%가 노후에 중소도시 이상 대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며, 노후 주거지 선택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문화시설'을 꼽았다. 베이비붐세대는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광주시에는 18만5991명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이 지

난달 4일부터 18일까지 광주시 거주 1955~1963년생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광주지역 베이비붐세대의 노후 관심분야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문화와 여가생활을 노후생활에서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경제적 안정과 일자리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후에 일을 한다면 이전의 일과 유사한 일(45%)이나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34%)을 하고 싶어

하며, 은퇴 후에도 똑같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낮은(17%)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또 노년에 매우 역동적인 여가생활(50%)을 즐기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배우고 싶은 여가활동으로는 댄스(1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헬스·수영·탁구 등 역동적 운동(17%), 등산(14%)이 뒤를 이었다. 요가(8%)와 바둑장기(6.6%) 등 정적인 운동·취미는 선호도가 떨어졌다. 또한 여가활동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으로는 배우자(54%), 친구(31%), 동호인(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24%)보다는 남성(39%)이 친구와 함께하고 싶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들은 또 사회참여활동(시민단체, 정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69%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회참여를 하고 싶다는 응답자(67%)가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33%)보다 훨씬 많았다. 사회참여 활동 희망분야로는 사회복지분야(26%), 교육 및 문화예술분야(21%), 보건의료분야(1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분야(14%), 교통 및 환경분야(10%), 시민단체분야(8%) 순이었다. 한편, 예비은퇴자들인 베이비부머들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0~74세(52%)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연령대를 노인으로 생각하는 층(37%)이 가장 많았지만 베이비부머들은 과반 이상이 적어도 70세는 넘어야 노인이라는 인식을 갖고있는 것으로 조사돼 노인이란 생각하는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국가와 사회가 노인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는 노년기 건강보호·요양보호서비스(34%), 노후 소득보장(27%), 고용연장 및 고용기회 확대(22%), 여가문화지원(13%), 노년기 평생교육(3%)을 꼽았다.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95%로, 오차범위는 ±3.5%p다. /홍경기기자 redplane@



MIT 불법 비자금

2.14(화) 15:00 · 장소 · 국회
정권비리 규탄대회 민주당통합 한명숙 대표와 이영민 최고위원, 차영 양찬규 예비후보 등 19대 총선후보자들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MB정권부정부리 및 불법비자금 게이트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는 낙하산 퇴직관료 안식처 아니냐”

민주당통합내 특정 예비후보 겨냥 전략공천 반발 확산

민주당통합내 광주 서구 갑 선거구에 특정 여성 후보 전략공천설이 나돌면서 상대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고갑석 예비후보는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출신 여성에 대한 전략공천설에 광주시민

은 분개한다”며 “광주는 더이상 낙하산 퇴직관료의 안식처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예비후보로 등극한 장하진 전 여성가족부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는 “광주의 역사와 정신, 시민의 정서와 유리된 국회의원들로 채

워지면 정치와 시민이 분리되고 민주당과 광주가 멀어진다”며 “장·차관급 계급장이 더는 공천의 보습수표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서구청장 선거 때 민주당의 여성 후보가 두 번이나 패했다”며 “민주당통합 지도부는

민심과 단절됐던 지난 경험을 더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해자 후보도 지난 12일 자료를 내고 “중앙당은 민심을 외면한 낙하산공천이나 중앙인사 내리꽂기 식에 대한 유혹을 버리고 정당한 절차를 통한 후보선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사자인 장하진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난 13일 출마기자회견에서 “전략공천설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면서 “전략공천이란, 경선이던 지도부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고포상금 역대 최고액 선관위 1억2천만원 지급

4·11 총선 예비후보자의 매수 행위를 신고한 시민이 역대 최고 포상금인 1억2000만원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10·26 순창군수 재선거 후보자의 매수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된 1억원이 가장 많은 금액으로 기록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지역 예비후보자 A씨의 금품제공사실을 신고한 B씨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측근으로부터 A씨의 프로필과 출마의 번 등이 담긴 문건과 현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조사과정에서 A씨가 측근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난 1년간 약 4000만원을 전달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A씨와 A씨의 측근을 검찰에 고발했고, 두 사람은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신정아 가짜학위 확인 과실은 소송감”

美법원, 동국대 손배소 피하러던 예일대 기각요청 거부

‘신정아 가짜 학위’와 관련해 동국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회피하려던 예일대가 미 법원의 퇴짜를 맞았다. 13일(현지시간) 동국대 측의 미국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코네티컷 지방 법원은 지난 10일 신정아의 학위 확인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하해 달라는 원고 예일대의 요구를 기각했다. 터커 벨라컨 코네티컷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에서 예일대의 소송기각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명예훼손과 부주의 혐의에 대한 기각 요청을 거부한 반면 무모하고(reckless) 악의적인 행위를 했다는 동국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예일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각 결정했다. 본격적인 손해배상소송은 오는 6월로 잡혀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 호남에 장성 출신 후보 2명 또 투입

정재하 예비역소장·이상선 예비역준장 출마 결심

새누리당이 호남에 예비역 장성들과 전직 고위 공직자들을 대거 투입, 열세를 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 비대위 산하 인재영입분과위원장이 조동성 비대위원이 호남에 지역 기반을 둔 인사들과 다방면으로 접촉하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인사로는 육사 첫 졸업기수인 정재하 예비역대장(전 국방장관)의 아들인 정재하 예비역소장과 이상선 예비역준장, 정 전

소장은 담양·곡성·구례, 이 전 준장은 함평·영광·장성에 각각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이 고향인 정 전 소장은 “조금이라도 지역구도를 깨는 게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장성 출신을 받아들였다”며 “선거비용을 감당할 만큼 경제적 여유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한번 부딪쳐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함평 출신인 이 전 준장은 “예편하고 지역에서 10년여 년을 생활하다

보니 지역이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돼 중앙정치와 괴리된 측면이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집지 않은 출마 결정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영입 사라는 아니지만 김여태 예비역준장도 광양의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한 상태다. 인재영입분과는 아울러 전직 차관급 인사 4명에게도 꾸준히 출마를 설득하고 있으나 당선은커녕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10% 이상 득표도 어려운 만큼 대부분 출마를 주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국 탈북자 24명 북송 위기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건너간 탈북자 24명이 송환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들 탈북자 중 10명은 중국 공안에 억류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기다리던 중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을 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넘어간 탈북자 24명이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중국은 12~13일 두 차례 북·중 공안회의를 개최해 탈북자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며, 현재 북송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새로운 도전!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공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 수상

부자 프로젝트 2012년 불경기시대의 성공전략!! 부동산 전문강의

정영수 경영학 박사의 9,000여명이 감동한 명강의!!
▶ 호남대 복지행정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학위과정 겸임교수

복지행정대학원 호남유일 “부동산석사학위과정” 선착순 장학금 지급!

평생교육원 부동산 최고 전문가 과정 매주 (월) 19시~22시 (강의료: 27만원)
부동산 실전 경매과정 매주 (월) 10시~12시 (강의료: 15만원)

강의 일정 : 3월~6월 선착순 마감

특전 ▶ 재학생 30% 할인,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 직권사건 등 합법혜택
▶ 부동산 권리 분석사, 경제분석사 자격취득, 수료 후 모임결성 통한 정보교류

호남대 복지행정대학원 평생교육원 (쌍용동 캠퍼스)
상담전화 370-8114 H.P 017-613-1808

철저한 독일인의 강인 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품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티마을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국가공인 (2010. 11.24 교과부 제2010-1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제14기)

※ 국가공인등급(특급·1급·2급·3급)

▶ 모집기간 : 2012년 2월 1일(수) ~ 2012년 3월 5일(토)
▶ 연수기간 : 2012년 2월 28일(화) ~ 2012년 8월 9일(토)24주 (96시간)

과정명	개강일시	모집인원
3급반	화요일(오전) : 2012년 2월 28일(화) 09:30 목요일(오전) : 2012년 3월 1일(목) 09:30	25명
2급반	수요일(오전) : 2012년 2월 29일(수) 14:00	25명
특급반	수요일(오전) : 2012년 2월 29일(수) 09:30	25명

▶ 수업시간
• 오전반 : 09:30 ~ 13:00 • 오후반 : 14:00 ~ 17:30

수료후 특전
• 방과후 학교 한자·한문지도강사 한문학원 개설
• 각 대학 평생교육원·학원·시·구청·복지관 한자지도강사
• 연수과정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별)자격취득기회

▶ 수강료 : 350,000원 (총합 175375-56-065137(이준선))

▶ 수강신청 및 접수처
• (사)한자교육진흥회 광주·전남본부
• 문의상담 : ☎ 062)366-9666, 367-8666
• 지도교수 (문의상담)
010-9221-5225(1·특급), 016-9340-6991(2·3급)
011-9937-2729(2급), 011-614-2618(2·3급)

국가공인 자격관리·운영기관
(사)한자교육진흥회 주관 한국한자한문지도사 연수원 시행
(광주시 서구 농성동 633-28, 건강관리협회부근)

공무원 대 출
무방문·무담보·무보증·무조회기록

1. 대상 - 현직공무원, 기능직, 교직원, 군무원
2. 한도 - 300~7000만원
3. 금리 - 연-5.9%미만(천만원월 5만원미만)
4. 기간 - 1년~10년 중 선택(본인선택, 영장가능)

❖과다대출, 연체(등기미달)자도 가능!!
❖고급리 대출 사용자 → 저금리 대출로 전환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자 → 100~500만원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한도는 변동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담 010-7112-3135
(대부 제 540호)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록서비스 · 개인정보정당한 처리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년 6%정도(천만원월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기미달)자도 해당

고급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액의 선순위 대출시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은행금율) / 후순위 - 월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담 010-5554-2100
(대부 제 642호)